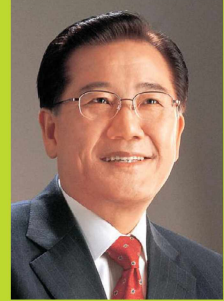


명사칼럼

저탄소 녹색산업을 선도하는 ‘녹색의 땅’ 전남



박준영
전라남도지사
061-247-0011

모든 가능성을 찾아 열고

우리나라 지도를 거꾸로 놓고 보면 대륙의 첫머리가 전라남도이다.

전라남도는 2면의 바다가 중국과 일본에 인접해 있는 동북아시아의 중심이다. 또 유라시아 대륙의 기점이 되 태평양으로 진출하는 관문이다. 이렇게 지형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땅 전남이 한때 산업화와 정보화시대의 중심에서 비켜남으로서 아직까지도 낙후를 면치 못하고 있다.

그동안 수도권과 동남권을 축으로 하는 정부의 개발 드라이브 정책에서 소외되어 각종 SOC시설이 타 지역에 비해 매우 부족하다. 특히 기점성장방식의 성장논리와 경제성 및 효과성을 잣대로 들이대는 정부의 사업선정방식은 SOC가 부족한 전남에 치명상을 안겨 주었다. 빈곤의 악순환이 계속된 것이다. SOC가 부족하다보니 기업이 오지 않고, 기업이 없기 때문에 일자리가 없고, 정당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로 나가다 보니까 인구가 감소했다.

현재 전남은 전국토의 12.1%의 차지하고 있다. 이에 비해 인구는 193만 9천명으로 전국의 3.8%에 불과하다.

특히 70년 이래 전국 인구는 62%가 늘어난 반면 전남의 인구는 오히려 42%나 감소했다. 노령 인구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고, 2차 산업의 비중은 9.2%로 전국 평균의 절반수준이다. 이로 인하여 재정자립도나 지역 경제력지수는 전국 최하위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보면 낙후가 남겨준 소중한 자산이 많다. 훼손되지 않은 자연과 오염되지 않은 물과 공기 등이 그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이곳을 미래를 위하여 아껴둔 땅이라고 한다. 분명 그렇다. 우리는 아껴놓은 축복의 땅을 활용하여 이제 대한민국에 크게 기여하는 미래의 성장동력으로 만들어 나가고 있다. 세계 그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2천개의 아름다운 섬과 6,032km의 긴 리아스식 해안, 그리고 1천 km에 달하는 세계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길 좋은 깎벌이 전남에 있다.

또한 공기가 맑고 일조량이 많아 사계절 레저활동이 가능하며 연료비를 비롯한 생활비도 가장 적게 든다. 2백만 전남도민과 공직자들은 이러한 천혜의 자연조건을 가진 전남을 신·재생 에너지산업과 바이오 생물산업, 관광산업과 레포츠 산업의 메카로 만들어 나가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



전국 제1의 친환경 녹색산업의 중심지로

우리 전남의 슬로건은 '녹색의 땅 전남'이다. 우리 도는 이 슬로건을 지난 2005년 정하고 녹색산업을 주도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부터 역점 추진 중인 저탄소 녹색성장정책과 궤를 같이하는 시책이다.

전국 광역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생명식품 생산 5개년 계획'을 수립 추진하여 전국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의 58.2%, 전남 경지면적의 32.5%를 친환경농산물 생산단지로 지정하여 육성하고 있으며 해마다 그 규모를 늘려가고 있다.

또 자연순환형 친환경 육산과 친환경 수산업을 집중 육성하여 국민들에게 안정적인 먹거리리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바이오 생물산업은 전남의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 있다. 지역에서 나는 친환경 농산품과 산약초를 활용하여, 고부가가치 식품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나주에 식품산업연구센터를 설립하였고, 화순에는 생물의약품연구센터와 녹십자백신산업을 유치했다. 장흥에 천연자원연구원과 한방산업진흥원, 곡성에 생물방제센터를 설립했고, 장성에 나노 바이오 연구센터를 건립 중에 있는 등 생물 산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아시다시피 우리 전남은 전국 평균보다 10% 이상 많은 일조량을 가지고 있고 바람의 세기도 제주도와 비슷하다. 또 해안과 섬, 섬과 섬 사이를 흐르는 조류가 빠른 곳이 많다. 이러한 여건을 활용하여 신·재생에너지산업을 정부의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계획 및 신성장동력 육성방안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다.

신안지역에 세계 최대규모의 24Mw급 태양광 발전소를 준공했고 고흥에 40Mw급 솔라테마파크와 울돌목에 30Mw급 조류발전소, 신안에 해상 풍력발전소를 조성하는 등 2015년까지 신·재생에너지 생산전용율의 40%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전용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연관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있고 이를 지원할 '청정에너지 기술연구원'과 '지방과학연구단지'를 설립 중에 있다.

환경산업 육성을 위해서 환경산업단지 조성과「환경

산업종합기술지원센터」건립을 추진하고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내「한국전력거래소」의 이전과 연계하여「탄소배출권 거래소」를 유치하고 있는 등 환경산업의 성장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이와 관련 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와 무안기업도시,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를 탄소제로도시로 시범건설하고, 친환경 지역개발의 조기 정착을 위해 녹색성장 지역개발 모델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전남 서남해안에서 생산되는 전일염은 08년 33만8천 톤으로 전국 생산량의 88%를 차지하고 있다. 이 전일염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프랑스의 게랑드 소금보다 칼슘·칼륨·마그네슘 등 인체에 유익한 미네랄 함량이 3배가량 많으며, 혈압상승 억제, 당뇨 완화 등에도 효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남해안의 전일염이 Kg당 200원 정도에 거래되는 반면 게랑드 소금은 최소 6배에서 132배에 이르는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다.

우리 도에서는 세계적으로 비교유위에 있는 갯벌 전일염을 명품으로 키워 1조원 이상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전해의 관광자원 개발 및 레포츠 산업 육성

다도해에 흩뿌려져 있는 2천여개의 보석같은 섬들은 쪽빛 바다를 비롯한 빼어난 자연경관과 어우러진 한 폭의 그림이다. 또한 6천52Km에 이르는 리아스식 해안선은 세계 최대규모로서 휴양과 해양 레포츠 등 웰빙 체류형 관광지 개발을 위한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우리 도에서는 풍광이 아름다운 섬 40개를 선정하여 4개 클러스터 15개 테마로 개발하는 갤럭시 아일랜드스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신안과 영광의 다이아몬드세도 클러스터에는 동물의 섬과 휴양의 섬을, 진도와 해남의 조도 클러스터에는 맹상의 섬, 전망의 섬, 음악의 섬을 조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완도 보길도 클러스터에는 건강의 섬, 어촌체험의 섬을, 고흥과 여수



의 사도·낭도 클러스터에는 원시체험의 섬, 가족의 선, 생태의 섬을 조성하는 등 세계적인 관광지를 조성하여 선 관광자원 내의 브랜드 가치를 세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진남 서남해안의 갯벌 면적은 1천km로 전국의 40%에 달하고 세계 5대 갯벌중의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게르마늄 함유량이 많아 환경친화적인 체험관광의 최적지로서 교육적 가치, 환경적 가치, 경제적 가치가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러한 천혜의 자원인 갯벌을 도립공원으로 지정하고, 섬과 천일염을 연계한 자연생태체험관광 자원으로 개발하고 있다.

특히, 세계 3대 스포츠 이벤트중 하나인 2010 F1 국제 자동차 경주대회를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에서 개최하여 국내 관광·레포츠산업의 돌파구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 F1대회 개최를 계기로 '모터스포츠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모터스포츠 R&D센터와 부품단지 등을 연관 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며, 세계 100여개국 800만명이 관람할 것으로 예상되는 2012 여수세계박람회 개최를 준비 중이다.

살고 싶어 돌아오는 전남으로

우리 전남은 공기가 깨끗하고 전국 58%의 친환경 농산물이 생산되고 있기 때문에 아토피와 천식 등 환경질환자 발생률이 국내에서 가장 낮다. 또, 기후가 따뜻하고 일조량이 많아 사천 레저활동이 가능하고, 난방비 등 생활비가 수도권의 1/4 밖에 들지 않는다. 땅값 역시 전국 평균의 1/5 수준에 불과하고, 자연경관도 매우 수려하다.

이러한 자원을 활용하여 우리 도에서는 도시 이주자들을 유치하기 위하여 한옥 신축 및 주택 수리비와 귀농자에 대한 농지·농기계 구입비용 융자 등 이주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정주여건을 갖춘 행복마을과 전원마을, 농어촌 뉴타운을 조성하고 있으며, 특히 은퇴자 도시건설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 행복마을은 국적불명의 주택

들로 메워지고 있는 농어촌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농어촌 주민들이 쉼이 있고 쾌적한 생활을 하게 하기 위하여, 한옥과 기반시설을 두루 갖춘 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을 말한다. 은퇴자 도시는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살리면서, 골프와 승마 등 다양한 레저시설과, 의료, 상업, 행정, 문화 등 도시의 모든 편의시설이 결합된 새로운 개념의 도시다.

우리 도에서는 공기업을 전남개발공사를 사업에 참여시키고, 공공개발 차원의 인·허가와 토지매입 등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윈스텝 서비스로 지원하고 있다.

지난 5월 말까지 우리 도에 이주 여건을 물어 오신 도시민들이 5,289명이고, 실제로 전남에 들어와 살고 계신 분들도 현재까지 1,513명이나 된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매년 3만 6천여명씩 줄어들던 인구감소세가 최근 들어 1만 8백명 수준으로 줄었고, 얼마 전에는 전원 대비 132명의 인구가 늘어남 바 있다.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뒤따라야

아직까지 우리 전남의 경제여건은 취약하다. 하지만 발전 잠재력은 무궁무진하다. 이러한 발전 잠재력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공공투자와 민자 유치가 필요하다.

그러나 법적 지원체계와 재정지원이 미흡하고, SOC 시설부족으로 인한 접근성 제약 등이 난제이다. 또, 나도해 해상국립공원, 수산자원보호구역, 자연생태계 보전특정도서 등 각종 규제로 인하여 개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정부가 지방의 발전보다는 수도권 규제 완화를 통해서 국가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점이다. 전국 국토면적의 11.8%에 지나지 않는 수도권에는 인구의 48.4%, 생산기능의 60%, 경제·사회·문화 중추기능의 80%가 집중되어 있다.

따라서 당연히 주택과 교통, 환경문제 등으로 인한 경

제작 비효율과 기회비용이 매우 클 것이다.
 생각해보자. 같은 비용으로 도로를 개설할 경우 수도권에는 대부분이 토지보상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투자비용이 엄청나다. 그러한 투자비용을 전남 등 비수도권 개발에 투자한다면, 수도권의 몇 배에 달하는 기반시설을 확충 할 수 있다. 좁은 국토를 균형 있게 개발하여 다핵 축으로 발전할 때 우리나라의 경쟁력은 훨씬 높아질 것이다.

우리 전남은 비록 산업화와 정보화에는 뒤졌지만, 21세기 지식가치시대의 다가오는 바이오테크 시대에서의 발전 잠재력은 무궁무진하다. 전남이 보유하고 있는 전체의 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발전모델이 상공할 수 있도록 국가차원의 제도적 지원과 SOC 투자가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다.

| 기술표준 2009. 7

